

본문 : 누가복음 23 장 50-56 절

제목 : 왕과 역인 사람들

1. 빌라도의 고백

“ 가슴을 째는 듯한 비장한 음악과 함께 서서히 불이 꺼지면 - 이윽고 억센 바람소리와 천둥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그런가 하면, 이따금 번개불이 섬광처럼 어둠속을 스쳐가기도 한다. 그런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 " 라는 사도신경의 한구절이 마치 저주의 합창처럼 남녀의 목소리가 혼성으로 뒤범벅되어 에코로 반복되다. 에코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어둠속을 뚫고 들려오는 비명에 가까운 빌라도의 단발마적인 피맺힌 절규.

[빌라도] 그만! 그만! 그만! ---"

이진수라는 분이 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 드라마의 첫 씬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기억되는 이름 빌라도의 독백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고 빌라도의 내면의 심리와 감정들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만 그만 그만 하고 빌라도가 외치자 사도신경 소리는 사라집니다. 긴장이 만들어낸 고요함이 극도로 불편해질 때, 빌라도는 룡핀 아래서 처절한 눈빛으로 관객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애원하듯 힘겹게 입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유대의 총독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한 빌라도,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괴로운듯> 그러나 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 제발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만은 좀 빼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건 절대로 안된다구요? 그것만은 절대로 안되겠다구요?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빌라도는 지금도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빌라도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는 몇 번이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었죠. 하지만 빌라도는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에 관한 재판과 판결의 최고 결정권자였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지금까지 두고 두고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며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2. 손을 씻은 빌라도

마태복음 27 장 24 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씻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의 이 행위 이후로 지금도 손을 씻는다는 표현이 “나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Responsibility 는 Response 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대의 아픔과 고통에 respond 하는 것이 책임인데, 빌라도에게서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씻는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과 짐을 대신 짊어 지시는 삶을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손을 씻은 빌라도와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에서 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엮이지 않으려 했던 빌라도는 최고 결정권자임에도 예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빌라도에게 있어 의를 이루거나 선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고,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비겁하게 손을 씻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스승임에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지저분한 것을 씻어 주는 이는 나의 손도 깨끗해 지는 것을 아셨기에 기꺼이 다른 이의 발을 씻고 그의 짐을 지는 삶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 4:17).” ‘나라’라고 쓰인 헬라말은 ‘Basileia’입니다. 왕과 영토와 백성이 있는 Kingdom 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예수님은 3 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정의의 바실레이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바실레이아의 백성들은 타락과 죽음이 아닌 참된 평화와 복된 삶을 살 것이라 선포하셨죠. 계시록 11 장 15 절에는 “세상의 바실레이아는 우리 주님의 바실레이아가 된다.”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바실레이아의 대표인 비겁한 빌라도와, 하늘의 바실레이아의 대표인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나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3. 주님의 바실레이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묻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자였다고 소개합니다(마 27:57). 누가복음은 그가 공의회 의원이었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그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던 하늘의 바실레이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실레이아의 왕임을 그는 알았고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상층부에서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았던 특권층이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시신의 안장(安葬)을 위해 직접 무덤을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무덤은 시체를 땅에 묻는 방식이 아니라, 동굴에 안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동굴은 바위를 판 동굴이었기에 하루 이틀로 준비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이루어 가고 싶으셨던 그 바실레이아의 비전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바실레이아가 예수의 바실레이아가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가가 그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인간미가 넘친다는 말이겠죠. 의롭다는 것은 옳고 바르다는 말로서 손해보더라도 바른 것을 선택하는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의리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가 간절히 바라는 바실레이아의 주인이자 왕이신 예수를 향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공의회에서는 모두다 예수는 죽어야 한다고 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다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main stream 에 no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respond 하며 굳이 그의 곤란한 일에 엮이려는 사람인 것이죠. 빌라도처럼 내 체면과 편안함을 위해 올바른 일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4.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은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수양대군이 그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된 이후 그를 강원도 영월에 유배를 보내고 거기에서 죽게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중종실록에 보면 중종때에 우승지 벼슬을 가진 신상이 영월에 내려가 단종의 무덤을 찾아 본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흥도라는 마을의 촌장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The King's Warden)"는 바로 이 역사의 기록 한 문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상상입니다. 저는 시카고 노회에 가서 같은 방 목사님이 보자고 하셔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미니에폴리스 ANC 에도 곧 개봉한다고 하니 한 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유해진 배우가

맡은 역인 엄흥도는 처음엔 마을이 잘 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해 양반 한 분이 자기 마을로 유배되어 오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을로 유배 오신 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단종은 죽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대를 멸한다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엄흥도는 단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아리마대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데 <왕과 사는 남자>의 엄흥도가 오버랩 되더군요. 비록 한 때 왕위에 있었고 작은 아버지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어있지만 엄흥도는 단종을 향한 충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요셉 또한 지금 로마라는 바실레이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늘의 바실레이아의 왕이신 예수를 향한 충절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심하게 사회에서 왕따가 되더라도, 예수의 시신을 그가 책임지고자 합니다. 괜히 엮여서 좋을 것 하나도 없지만 그는 굳이 예수와 엮이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에 이렇게 책임있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5. 시신을 수습하는 이들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죽은 이를 향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직접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채로 있는 그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시신을 안장하는 것은 장례의 핵심이자 죽은 자를 향한 예의이자, 옳은 일임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작년에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슬픔은 아버지의 시신을 내 손으로 안장해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보내주는 핸드폰 화면의 영상으로는 그분에 대한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죽은 이를 애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화 중에는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La Deposizione Nel Sepolcro, The Entombment of Christ> 라는 1603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후대의 여러 화가들에 의해 카피된 작품입니다. 예수를 무덤에 내려 놓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남자 셋, 여자 셋이 등장합니다. 여성은 세 명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Virgin Mary, 막달라의 마리아 Mary Magdalene,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Mary of Cleophas 입니다. 각각의 마리아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맨 뒤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강렬하게 절규하면서 비극적인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막달라 마리아는 내면적이고 감정적인 슬픔을 표현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푸른 색 옷을 입고 두 팔을 벌려 아들에게 다가가면서 신성하고도 절제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는 예수가 사랑한 제자 요한이고 그의 손은 예수의 옆구리 창자국에 닿아 있습니다. 예수의 다리를 붙들고 있는 남자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 장 38-40 절에는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례를 도왔다고 합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베로 감았다.” 몰약 34 킬로그램은 정말 엄청난 양이었고 값비싼 것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식에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니고데모의 시선이 그림을 보는 독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들도 이 일의 증인입니까? 당신들도 함께 이 시신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그는 우리에게 묻는 듯 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로 내려 모시는 Peter Paul Rubens 의 “The Descent From The Cross 라는 작품입니다. <프란다스의 개>라는 동화에서 Nello 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성당 안에 걸려진 그림이었죠. 네로는 성탄절에, 이 그림 앞에서 잠들다 죽습니다. 까르바지오의 그림이 무덤에 예수를 안장하는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신을 받아 내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 수영이 덩수룩한 남성이 니고데모 아니면 요셉으로 보여집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의 신분이나 종교적인 위신을 생각하면 예수와 엮이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수습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가 꿈꾸셨던 바실레이아를 기다림을 공공연하게 나타냈습니다.

6. 공동체로 예수의 몸을 받아내기

루벤스가 이 그림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성이 아닐까 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그들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붙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로서 함께 커밍아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나는 예수가 보여준 바실레이아가 오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시요 믿음의 주가 되심을 그들은 예수의 몸을 받아내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들은 성당의

제단 앞에 걸어진 그림들이라 합니다. 제단이란 예수의 몸을 받는 의미의 성찬이 이뤄지는 곳이죠. 당시 사람들은 성찬에 동참하면서 이 그림 앞을 지나갔겠죠. 그림 속의 니고데모의 시선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신도 예수와 엮여 보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다른 이의 짐을 짊어지면서 나를 다른 이에게 선물로 주는 삶을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묻고 있습니다. Responsibility 는 타자의 아픔과 고통에 Respond 할 때만 생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에 응답하고 반응했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 후에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은 더욱 찬란합니다. 이번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일까요, 지난 주 산책길에서 만난 하얀 방울꽃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영원히 계속 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생명의 기운 앞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바실레이아를 꿈꾸는 자들의 봄도 그렇게 찬란하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이 이끄는 정의의 바실레이아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엮이지 않아도 되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에 Respond 하는 responsibility 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수의 몸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소자들을 정성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지는 이들의 삶은 참으로 복됩니다. 참 예수의 제자들은 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굳이 엮여도 되지 않는 우리 이웃들의 삶에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나의 욕망과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못박혀 죽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부디 우리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엮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해 선물로 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한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